국외출장계획서

<table>
<tr><td>구 분</td><td colspan="7">내 역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출장자</td><td rowspan="3">소속</td><td rowspan="3">기획조정본부</td><td rowspan="4">성명</td><td>김민수</td><td rowspan="3">직급</td><td>선임연구위원</td></tr>
<tr><td>최나영환</td><td>연구위원</td></tr>
<tr><td>오예진</td><td>전문연구원</td></tr>
<tr><td>외부전문가</td><td>김성진</td><td></td><td>前 해양수산부 장관</td></tr>
<tr><td>출장목적
(중복선택
가능)</td><td colspan="7">■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■ 국제행사 주최 ■ 국제행사 참가
□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□ 세미나, 교육, 훈련 □ 기타 ( )</td></tr>
<tr><td>관련사업
(예산항목)</td><td colspan="7">-「한반도 청색경제 기반 구축사업」(적립금) (사업기간 : 2025.04.01. ~ 2025.12.31.)
-「재난·재해 시나리오별 위험물 컨테이너 물류 공급망 대응방안 연구」(기본과제)
(사업기간 : 2025.01.01. ~ 2025.10.31.)</td></tr>
<tr><td>출장기간</td><td colspan="3">2025.8.5.(화) ~ 2025.8.9.(토) (4박 5일)</td><td>출장지</td><td colspan="3">일본 (도쿄)</td></tr>
<tr><td rowspan="14">출장일정</td><td>일자</td><td colspan="2">방문지</td><td colspan="3">주요업무*</td><td>항공편</td></tr>
<tr><td>8.5.(화)</td><td colspan="2">부산(12:30)→도쿄 나리타(14:45)</td><td colspan="3">항공 이동</td><td>KE 2129(최나영환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8.6.(수)</td><td colspan="2">니가타국제무역터미널(10:00)</td><td colspan="3">일본 니가타항 위험물 컨테이너 터미널 관련 인터뷰</td><td>차량 이동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니가타대학(14:00)</td><td colspan="3">일본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물류기업 면담</td><td>차량 이동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8.7.(목)</td><td colspan="2">부산(12:30)→도쿄 나리타(14:45)</td><td colspan="3">항공 이동</td><td>KE 2129(김민수, 오예진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주일 한국대사관(17:00)</td><td colspan="3">주일 한국대사관 방문 및 인터뷰</td><td>차량 이동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서울(15:45)→도쿄 하네다(17:50)</td><td colspan="3">항공 이동</td><td>OZ 1045(김성진)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8.8.(금)</td><td colspan="2">프린스 사쿠라타워 도쿄호텔 컨프런스룸(10:00~12:00)</td><td colspan="3">'한-일 미래물류 정책 포럼' 개최</td><td>차량 이동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일본해사센터(JMC)(14:00)</td><td colspan="3">'한일 해운·물류 협력 세미나' 참석</td><td>차량 이동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일본대학교(15:30)</td><td colspan="3">일본대학교 해운항만물류 전문 연구자 면담</td><td>차량이동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8.9.(토)</td><td colspan="2">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(10:00)</td><td colspan="3">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방문</td><td>차량 이동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POSCO 재팬(15:00)</td><td colspan="3">포스코 재팬 방문 및 담당자 면담</td><td>차량이동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도쿄 나리타(19:20)→부산(21:35)</td><td colspan="3">항공 이동
*김성진 前장관 개인 일정으로 별도 귀국</td><td>KE 2132(김민수,
최나영환, 오예진)</td></tr>
<tr><td>출장성과</td><td colspan="7">○ 출장목적 달성 정도
- (목적 1) '한일 미래물류 정책 포럼'(주일 한국대사관과 공동)
- (목적 2) '한일 해운물류 협력세미나'(KMI MOU 기관인 일본해사센터(JMC) 공동)
- (달성 정도) 당초 목적 달성
○ 주요 성과
- '한일 미래물류 정책 포럼' 성공적 개최 완료
- '한일 해운물류 협력세미나' 성공적 개최 완료
- 일본대학과 공동연구 등 협력연구 계획 논의
-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방문</td></tr>
<tr><td>향후계획</td><td colspan="7">○ 출장 성과 공유 계획
- 출장 결과 성과 보고 반영
○ 정책화 등 활용 계획
- 한-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장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</td></tr>
<tr><td>참고 등
특이사항
(건의사항)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/table>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√))

업무유형	■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■ 국제행사 주최 ■ 국제행사 참가 □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□ 세미나, 교육, 훈련 □ 기타 ( )
업무①	**8.6.(수) 일본 나가타항 위험물 컨테이너 터미널 및 물류기업 관련 인터뷰**
수행계획	▫ **(오후)** 일본 나가타항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관련 인터뷰 - **목적** : 일본의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재난·재해 대비 관리 체계 현황 조사를 통해 우리 나라의 적용 가능성 및 관리 방안 검토 - **일시** : 2025.08.06.(수) 14:00~16:00 - **참 석 자 : 니가타대학 아라이 히로후미 교수, (주)니가타국제무역터미널: 히로이 상무, 노자와 과장, (주)린코 코퍼레이션: 구마쿠라 부장, 고야마 부장, KMI 최나영환전략기획실장 등**
수행결과	▫ **(오후)** 일본 나가타항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관련 인터뷰 **-「재난·재해 시나리오별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망 관리 방안」연구 설명** · 연구 배경 및 목적, 목차, 일본 사례조사 취지 설명 **- 니가타 컨테이너 터미널 및 물류기업의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현황** · (인적) 일본의 터미널 및 물류기업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률에 정해진 자격(위험물취급자)을 갖추어야 하고,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취급자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* 터미널에서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소방법에 의거해 위험물 보안감독자 또는 위험물취급자 자격이 요구되고 있고, 물류기업은 위험물취급자 면허(을 또는 병종) 보유해야만 위험물 운송이 가능함. 터미널 및 물류기업은 직원 독려 및 교육을 통해 위험물취급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** 안전관리자의 경우 법률에서 정해진 정기 교육을 실시(항만은 위험물안전협회의 신규자 교육 및 보수교육을 각각 년 1회, 3회 실시, 도로는 전국위험물안전협회 등에서 정기교육을 실시 中)하고 있으며, 작업자의 경우 위험물 작업 전 MSDS 등의 교육 실시를 통해 사고 예방을 실시하고 있음 · (시설) 소방법에 의거해 항만 터미널, 물류시설, 도로 운송에 관한 설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, 강화된 설비 및 소화기준을 적용해 위험물 사고 시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* 터미널의 경우 주요 선석 기준별 허용 가능한 위험물이 규정되어 있으나, 니가타항은 비교적 위험물의 물동량이 적은 관계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수준 ** 터미널에 소방청 등에서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이 수행되고 있으나, 초기 시설 규정이 강력해 시설 규정에 의거한 운영·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특별한 조치 사항은 없음 · (정보) 터미널 및 물류기업별 위험물 정보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, 로테르담과 같은 항만 당국의 종합적인 위험물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* 향후에는 위험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, 현시점에서 시스템 구축의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의 실효성이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** 또한 일본의 항만 관리체계 관점에서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해당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, 국토교통성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 개발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√))

- 재해 대응 시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현황

· 항만 및 도로 운송에 대한 재해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의 재해대책 매뉴얼에 의거해 수립되고 있으며, 각 터미널 및 물류기업에서도 자체적인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

  * 터미널 및 물류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매뉴얼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, 정부 차원에서의 매뉴얼은 소방청의 防災基本計画, 국토교통성의 港湾危険物等災害対策編, 国際海上コンテナの陸上における安全輸送マニュアル 등에 의거해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작성되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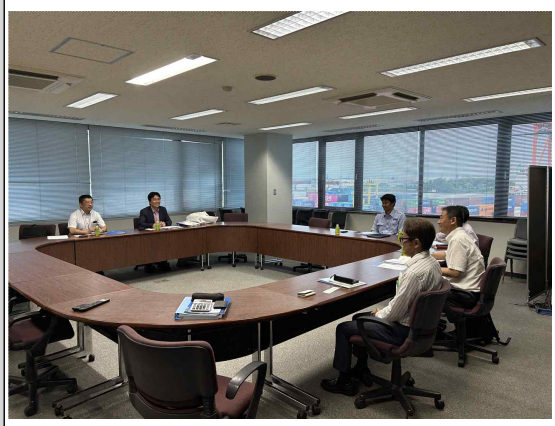
** 정부 차원에서 구축된 관련 매뉴얼은 자료로 제출하였으니, 연구에 참고 바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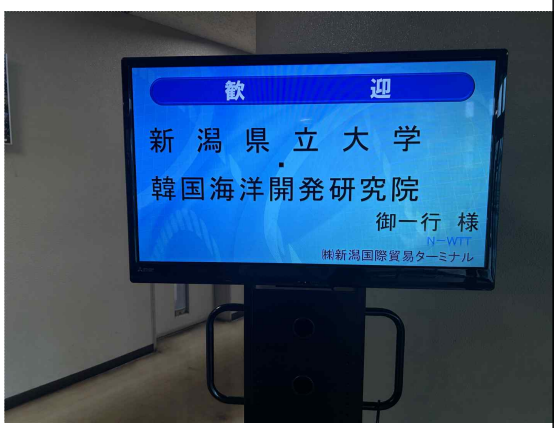
- 위험물 사고 발생 대응 방침

· 위험물 사고 발생 시 매뉴얼에 의거해 소방당국, 지방관리청, 지자체 등과의 연계 대응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, 해외 사례와 같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재해 대응 체계는 아직 없는 상황

  * 매뉴얼에 의거해 재해 예방, 재해 대응, 복구 등의 체계와 더불어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등이 구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니가타항에서는 위험물 컨테이너의 사고가 많지 않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대응한 경험은 없는 상황임

** 동 대응 방침도 정부 차원에서 구축된 관련 매뉴얼은 자료로 제출하였으니, 연구에 참고 바람



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√))

<table>
<tr><td>업무②</td><td>8.8.(금) '한-일 미래물류 정책 포럼' 개최</td></tr>
<tr><td>수행계획</td><td>▫ (오전) '한-일 미래물류 정책 포럼' 개최
- 목적 :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해운항만물류 교류 성과 및 발전 방향 모색
- 일시 : 2025.08.08.(금) 10:00~12:00
- 장소 : 프린스 사쿠라타워 도쿄호텔 2층 컨프런스룸
- 참석자 : (주일대한민국대사관) 정경록 상무관, (KMI) 김성진 前장관, 김민수 본부장, 산업계 전문가 20인 내외
- 주최/협조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, 주일한국대사관 / 부산항만공사(BPA)</td></tr>
<tr><td>수행결과</td><td>▫ (오전) '한-일 미래물류 정책 포럼' 개최
- 프로그램
<table>
<tr><th>시간</th><th>세부내용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10:00 ~ 10:05 (05″)</td><td>개회 및 참석자 소개</td><td>김민수 기획조정본부장(KMI)</td></tr>
<tr><td>10:05 ~ 10:15 (10″)</td><td>인사 말씀</td><td>김성진 前해양수산부 장관
주일 한국대사관 정경록 상무관</td></tr>
<tr><td>10:15~ 10:20 (05″)</td><td>단체 기념촬영 및 자리 정리</td><td>참석자 전체</td></tr>
<tr><td>10:20 ~ 10:30 (10″)</td><td>새정부 해양수산 정책과 연계한 한-일 협력 방안</td><td>최나영환 전략기획실장(KMI)</td></tr>
<tr><td>10:30 ~ 10:40 (10″)</td><td>일본 국제 내항피더 동향 및 부산항 시사점</td><td>박제성 도쿄지사장(BPA)</td></tr>
<tr><td>10:40 ~ 11:50 (70″)</td><td>참석자 종합토론 및 Q&A
▶주제 1) 신정부 정책*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및 논의
* 북극항로(해운·물류 관점)/ 친환경 해운/ 국적 선박 확보
▶주제 2) 일본진출 한국 선사 및 물류 기업 애로사항 의견 청취</td><td>(좌장) 김성진
미래물류기술포럼(NeLT) 의장
(토론) 해운, 항만, 물류 관련 기업 관계자</td></tr>
<tr><td>11:50 ~ 12:00 (10″)</td><td>마무리 말씀 및 폐회</td><td>김성진 前해양수산부 장관</td></tr>
<tr><td>12:00 ~</td><td>오찬</td><td>그랜드 프린스 신타카나와 호텔 레스토랑, 시미즈 일식</td></tr>
</table>
- 신정부 해양수산 정책(KMI 발표)
· 북극항로·친환경 해운·국적선박 확보는 모두 한-일 공동 대응 여지가 크며, 기술·운영·인프라 측면에서 양국의 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높음
· 특히 북극항로는 저탄소·친환경 물류와 부산·광양항 거점화 전략이 맞물려, 일본 항만 네트워크와 연계 시 경쟁력 강화 효과 기대
· 친환경 해운 전환은 연료 공급망·저탄소 선박 건조 등에서 양국 공동 표준화와 공동 R&D 필요성이 부각됨
· 국적선박 확보는 일본 기항 노선과 전략 물동량 운송 모델 개발을 통한 동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함
- 일본 국제 내항피더 동향(BPA 발표)
· 일본 주요 항만과 부산항 간 환적 네트워크 강화는 물동량 확보와 중소형 선사 지원 확대의 기회로 작용
· 일본 화주·선사와의 전략적 제휴는 안정적 물동량 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 직결됨
· 친환경·디지털 기술 활용은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, 일본 사례에서 시사점 도출 가능</td></tr>
</table>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√))

- 종합 토론 및 Q&A 주요 내용

1) 신정부 정책 관련 업계 의견

· (**북극항로 활용**) 한국·일본 공동 시험운항 및 기상·빙상 정보 공유 필요, 북극항로 운항선박 친환경 연료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 요구

· (**친환경 해운 전환**) LNG·메탄올 등 연료 선택 시 양국 항만 인프라 동시 확충, 환경규제 대응 기술 공동연구 필요

· (**국적 선박 확보**) 한국 국적선사의 일본 기항 확대 및 물량 확보를 위한 세제·금융 지원 필요

2) 일본 진출 한국 선사·물류기업 애로사항

· 일본 항만의 **하역비·항만사용료 부담 완화 필요**

· 일본 현지 네트워크 및 마케팅 지원 부족 → **정부·공공기관 차원의 지원 요청**

· 일본 항만·세관 규제 대응 경험 부족 → **한-일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**

- 결론 및 향후 과제

· **(양국 협력 기반 강화)** 북극항로 공동운영, 친환경 연료 인프라, 피더항로 확충 등 실질 과제 추진

· **(산업계 지원 확대**) 일본 진출 선사·물류기업 대상 금융·마케팅·규제 대응 패키지 지원 필요

· **(지속 협의 채널 마련)** KMI·BPA·주일한국대사관 주관의 '한-일 해운물류 협력포럼' 정례화 추진, 양국 정부·산업계·연구기관 간 공동 R&D 프로젝트 발굴

[KMI 규제 개혁 T.F. 이슈 발굴] - 2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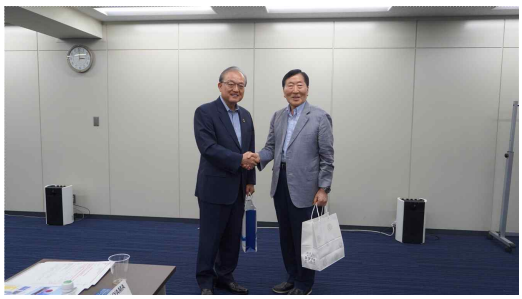
◈ **(카보티지(Cabotage) 규제 개선 필요성)** 국내 항로 국적선 중심 법적 한계로 외국 선사는 이용 가능하지만 한국 선사는 외국적 선박 운용이 불가한 불합리성 존재,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「선박법」 개정 필요성 제기

◈ **(부산항 다목적 터미널 운영체계 개선)** 부산항 다목적 터미널의 이용 불편 및 비용 부담 문제 지속, 운영 책임을 BPA가 주관하여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 및 항만 인프라 경쟁력 제고 필요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√))

<table>
<tr><td>업무③</td><td>8.8.(금) '한일 해운·물류 협력 세미나' 참석</td></tr>
<tr><td>수행계획</td><td>▫ (오후) '한일 해운·물류 협력 세미나' 참석
- 목적 : 한일 해사·물류산업 정책 교류와 실질적 공동연구 및 협력방안 모색
- 일시/장소 : 2025.08.08.(금) 14:00~16:00 / 일본해사센터(JMC) 회의실
- 참 석 자
· 일본해사센터 Masafumi SHUKUTORI, Hideyuki NAKAMURA, Setsuo NOMURA, Seijiro MORIMOTO, Naoshige SAKAMOTO, Hiromasa GOTO, Hideo FUKUYAMA, Takuma MATSUDA etc
· 김성진 前해수부 장관, 김민수 본부장, 최나영환 실장, 오예진 전문연구원 등
- 주최/협조 : 일본해사센터(JMC)/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</td></tr>
<tr><td>수행결과</td><td>▫ (오후) '한일 해운·물류 협력 세미나' 참석
- 프로그램
<table>
<tr><th>시간</th><th>세부내용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14:00~14:10 (10")</td><td>개회 인사</td><td>숙리 마사후미 회장(JMC)
김성진 前해양수산부 장관</td></tr>
<tr><td>14:10~14:25 (15")</td><td>한국의 신정부 해사정책에 기반한 한일 협력 메커니즘과 양국 해사산업 협력 방향 제안
- 신정부 해사정책: 북극항로 개척, 클린십 구현, 국적선박 확대, 해기사 인력 확보, AI 기반 자율운항선박 활성화 등
- 협력 방향 : JMC/JTTRI-KMI 세미나, 공동연구 등</td><td>최나영환 전략기획실장(KMI)</td></tr>
<tr><td>14:25~14:55 (30")</td><td>참석자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</td><td>참석자 전체</td></tr>
<tr><td>14:55~15:05 (10")</td><td>Coffee Break</td><td></td></tr>
<tr><td>15:05~15:15 (10")</td><td>한국 해사산업의 현황과 전망</td><td>최나영환 전략기획실장(KMI)</td></tr>
<tr><td>15:15~15:25 (10")</td><td>일본 해사산업의 현황과 전망</td><td>나카무라 히데유키
선임연구위원(JMC)</td></tr>
<tr><td>15:25~15:55 (30")</td><td>참석자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</td><td>참석자 전체</td></tr>
<tr><td>15:55~16:00 (05")</td><td>폐회 인사</td><td></td></tr>
</table>
- 대한민국 신정부 해양수산 정책 과제 발표
· 실용주의·사회통합·경제 회복·디지털 산업 중심 성장 등 정부기조에 따라 6대 과제(국적선 확보, 해기사 육성, 재난 안전 산업 육성, AI 기반 자율 운항, 북극 항로 개척, 친환경 해운 산업 육성) 수립 및 추진
· KMI-JMC 공동 연구, 정기 세미나·학회·협회 연계, 정부 차원의 해양수산부-국토교통성 협력 강화 등 한-일 협력방안 제안
- 일본 해사 산업 전망 발표
· 일본 무역의 99%가 해상 운송 의존, 세계 해상 무역 점유율은 감소 추세
· 상선대는 파나마 선적 집중, 일본 국적선은 세금 혜택으로 소폭 증가, 세계 선주 순위 3위
· 조선업은 한·중 대비 경쟁력 약화, DX·GX 추진 및 클러스터 전략 병행</td></tr>
</table>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√))

	- 주요 논의 사항 · 일본 측은 국적선 확보 정책에 대해, 일본의 세금 감면과 비교하여 한국의 정책 질의 → 한국의 경우 전략 물자 수송 선박 경쟁력 확보를 핵심으로, 외국 판매 제한·대형 화주 시장 진입 방지 등을 통해 국적선 이용률을 제고하고 있음 · 해기사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, 일본의 사회인 해기사 전환 제도와 비교 질의 → 전문 학교 중심의 양성 체계 운영, 사회인 전환 제도 부재를 언급하며 일본 성공 사례 도입 검토 가능성 표명 · KMI-JMC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공동 연구 추진 / JMC의 한·중·일 북극 연구 컨소시엄 참여 제안 / 베링 해협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동 연구 추진 / 북극 항로 운항 해기사 공동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일본 해사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일 협력 방안 제시 → 공동 연구, 정기 세미나 개최, 전문가 교류 등 실질적 협력 사업 지속 추진 

업무④	**8.8.(금) 해운물류항만 관련 일본대학 담당자 면담**
수행계획	□ **(오후)** 해운물류항만 관련 일본대학 담당자 면담 **- 참 석 자** · 일본대학교 테즈카 코이지로 교수 및 해운·항만·물류 분야 주요 연구자 · 김성진 전해양수산부장관, 김민수 본부장, 최나영환 실장, 오예진 전문연구원 등 **- 주요 내용** · 일본 측 학계의 주요 연구 방향 청취 · 공동연구(MOU) 체결 가능성, 연구자 상호 파견, 세미나 공동 개최 등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
수행결과	□ **(오후)** 해운물류항만 관련 일본대학 담당자 면담 **- 일본대학교 및 해운·물류 관련 학문 현황** · 일본대학교는 16개 학부, 약 7~8만 명의 학생을 보유한 대규모 대학으로, 경제학부 학생만 약 6~7천 명에 달하며 교수진 규모도 120명에 이름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√))

· 전공은 도시경제, 부동산경제, 교통경제, 기업경제, 유통경제, 언어·경영·회계 등으로 다양하며, 일부 전공에서는 해양·물류 엔지니어링 교육을 실시함

· 상학부의 항만경제학은 최근 물류학 중심으로 개편되었고, 법학부·위기관리학부에도 물류·교통법 전공 교원이 있음

- 일본 내 네트워크 및 협력 가능 자원

· 테츠카 교수는 일본해운경제학회 부회장으로서 학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 내 해운·물류·유통 전문가 섭외가 가능함

· 일본대학교 외에도 경제학회, 메이지대학, 운수종합연구소, 민유종합연구소, 닛츠종합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확보할 수 있음

· 특히 메이지대학에는 마치다 교수, 미즈타니 교수 등 교통경제·물류 전공 교수가 다수 활동 중임

- 협력 논의 및 추진 계획

· 단기적으로 9월 도쿄 로지스틱스 엑스포를 계기로 일본 측 교수·전문가와 KMI 간 간담회를 추진하며, 경제학회 네트워크를 통한 섭외가 현실적임

· 10~11월 중 한·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, 콜드체인·철도물류·북극항로 등 세부 분과별 약 10개 내외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함

· 테츠카 교수는 일본 측 인적·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가 섭외와 추천을 지원하며, KMI는 행사 기획안을 마련해 일정과 프로그램을 조율함

· 중장기적으로 한·일 간 정기 학술교류 체계를 구축하고, 소규모 파일럿 과제를 시작으로 대규모 공동연구와 젊은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함

· 일본 측 섭외 대상 명단을 확정하고, 9월 엑스포에서 1차 네트워킹을 실시하며, 연내 공동세미나 개최 여부를 확정하고 준비를 본격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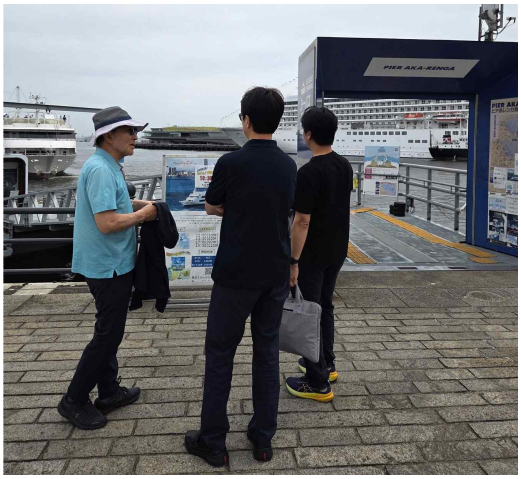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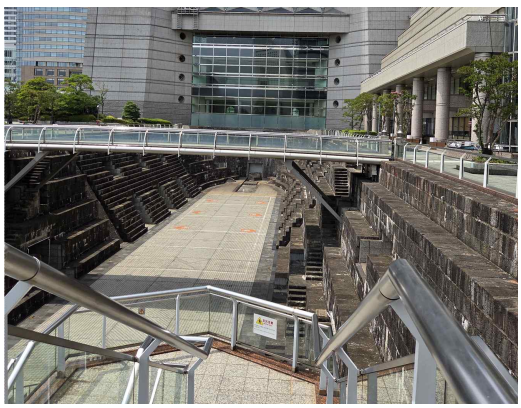
- 북극항로 관련 논의

· 일본의 북극항로 연구는 7~8년 전 활발했으나 최근 정체되어 있으며, 주요 연구자는 이시구로 교수와 시바사키 교수임

· 한국의 정책·연구 현황을 일본에 공유하면 학계의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, 학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극항로 세션 구성 가능성이 있음

· KMI가 중심이 되어 일본 전문가를 초청하고 발표·토론을 주관하는 방향이 논의됨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√))

업무⑤	**8.9.(토)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방문**
수행계획	□ **(오전)**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방문 **- 참 석 자** · 김성진 전해양수산부장관, 김민수 본부장, 최나영환 실장, 오예진 전문연구원 등 **- 주요 내용** · 미나토미라이21 사업(항만 배후도시 재개발 사업) 개요 및 추진 경과 조사 · 스마트항만·도시 융합 개발 사례 조사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례 조사 · 국내 항만재생·해양문화지구 조성사업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
수행결과	□ **(오전)**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방문 및 시사점 도출   **- 조선·항만 유휴지 재생의 성공 사례** · 미쓰비시 조선소 철수 이후 방치된 도심 항만 공간을 공원, 쇼핑몰, 업무지구 등으로 전환해 도시 활력 회복 · 조선·항만산업 구조 전환기 해양도시가 추구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서 시사점 큼 **- 민·관·시민이 협력한 장기 도시 재생 거버넌스 사례** · MM21을 통한 '합의 기반 규범' 수립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경관·보행권 등 공공성 확보 · 국내 항만재생 및 도시계획에서 거버넌스 설계의 선진사례로 참고 가능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√))

	- 기능 전환과 역사 보존의 균형 모델 · 과거 조선소 도크, 열차 철로 등 산업유산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해석 ·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해양문화 도시로의 정체성 확립은 국내 해양도시 재생 전략에 적용 가능 **- 이윤보다 공공가치 중심의 개발 철학 실현** · 매립지 분양 시 고가 낙찰이 아닌 공공 이념에 부합하는 제안 우선 선정 · 환경, 공공성, 시민참여 등 지속가능한 개발 지향은 향후 한국형 블루포트 정책 수립에 모범적 선례 **- 관광·고용·투자 유치의 복합적 파급효과 입증** · 2010년 대비 기업 수 1.3배, 고용 2만명 증가, 관광객 연 7,600만 명 유치 · 해양도시 브랜딩과 경제 다각화를 동시에 달성한 복합 성과 확인 가능

*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(관련 사진, 도표 필요시 추가)

*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(필요시 조정)